사 설

새 총무원장에 거는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무사히 치러져 정대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우선은 선거가 정말 문자 그대로 무사히 치러진 것에 대하여 안도하면서, 총무원장에 선출된 정대 스님에게 경하를 보내는 바이다. 그리고 아울러 총무원장 선거가 큰 잡음없이 치러지기만을 바랄 정도로 불안하고 침체된 이 시점에 총무원장의 중임을 맡게 된 정대 스님에게, 이 상황을 일신하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불교계를 다시 떨치고 일어서게 만들 대 화합 차원에서의 개혁적 행정을 기대한다.

신임 총무원장인 정대 스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간 불교계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여 화합 종단을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혹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작용하였음직한 문중과 계파를 초월하는 공정한 행정을 통해 내부를 다져야 할 것이다. 다져진 그 힘을 바탕으로 정화회의측과의 보다 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그간 불교계에 벌어졌던 수많은 다툼들이 앞에 내세웠던 큰 명분 못지않게 문벌과 계파간의 갈등에 그 뿌리가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화합 종단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바로 이 고질적인 뿌리를 잘라내는 일부터 실천되어야 하며, 그것은 총무원장으로서 행정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천만 불자들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여져야만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다툼으로 실추된 승단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천만 불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이 첫 걸음을 올바로 떼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화합이 단지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타협의 산물이 되지 않고, 우리 불교계가 지향해야 할 큰 목표를 뚜렷이 하고 그것에 승단을 비롯한 모든 불자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불교가 오늘에, 또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뚜렷이 제시하고, 그에 비추어 과거와 오늘의 잘못된 모습들을 과감히 고쳐나가는 개혁적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불교계를 병들게 했던 소모적인 갈등들은 불교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과감히 개혁하려 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거기에 계파와 문벌의 이해관계가 얽혀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제 부처님 지혜와 자비 광명을 누리에 펴는 구심점으로서 청정 화합 승단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승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신임총무원장이 우선 계파와 문벌을 초월한 공정한 행정으로 자신의 청정성을 보이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불교계의 화합을 이끌어내며, 다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으로 불교계를 떨쳐 일어서게 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당연하면서도 너무나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위상이 이제 더는 떨어질 수도 없을 만큼 추락해 있기 때문이다.

급한 상황이라고 한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조급함 없이 새 총무원장이 경륜을 펼 만한 안정적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승단 구성원과 모든 불자들의 자세이겠으나, 그러한 안심의 여지 또한 새 총무원장의 참신한 출발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자지휘관 수난…군승지원자 부족…예산난…

비틀거리는 군포교

23일 '군승의 날'

최근 잇달아 벌어진 종단 사태의 여파로 군법당을 찾는 신도들의 발길이 뜸해진 가운데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나섰던 불자 지휘관들이 모함성 제보로 인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에 휘말리는 등 군포교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군 포교 예산의 절대 부족, 군종법사 충원난에다 물론 군포교의 최대 지원단체인 군불교진흥회마저 10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어 군 불교가 전방위에 걸쳐 난국에 처해 있다. 23일 제31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군포교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한다.

불자 지휘관들의 수난:전 101여단장 김태복 소장이 군법당 호국백일사 건립과 관련 뇌물수수 및 금품요구 등의 혐의로 2심 선거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 연천군 제28사단 소속 00부대 전 연대장 H대령이 '군법당 석립사 증축 및 일주문 건립에 따른 시주금 횡령 및 사창가 외도'라는 혐의로 군 수사당국의 조사(1차 조사 무혐의)를 받는 등 타종교 군인들의 불교 지휘관 모함이 잇따르고 있어 군 포교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한 군법사는 "종교인 장성의 60~70%를 개신교인들이 점유해 불자 지휘관들의 몸사리기는 물론 개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상명하복의 군 특성상 군 불교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군승 지원자 부족:조계종 포교원과 군승단이 실시한 군종요원 선발시험(10월29일)에 응시자가 부족해 26일 추가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등 스님 및 청년 불자들의 군승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재학중인 학인들의 군승사관후보생 지원율이 저조해 매년 일반대학에 재학중인 스님들을 군승요원(8명정도)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해마다 군승 T.O. 18명 중 5명 가량의 결원이 발생(군승사관후보생은 5명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 국방부는 2002년까지 180명(현재 120명)으로 전체군승 T.O.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군불교진흥회의 표류:군포교 일선의 최대 지원조직인 군불교진흥회가 지난 2월 박상길회장의 사임이후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10개월 이상 표류해, 부처님오신날 위문품 보내기 행사 등이 어려움을 겪는 등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어 활성화가 시급하다. 12일 총회에서 정각스님(목포 보현정사 주지)을 뒤늦게나마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지만 예산확보와 조직재건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군포교 예산난:불자들의 위문품과 성금이 줄어들고 있어 군법회에 사용될 초코파이, 음료수 등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초임 군법사들은 마이너스 통장(500만원 상당)을 사용할 정도로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신교 군복음화후원회 등의 1년 예산이 20~30억원에 달하는 반면 종단 지원금(5천여만원)을 포함한 군승단의 올해 1년 예산은 1억2천여만원에 불과해 군법당 건축비 등에 사용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군승제도 미비:천주교의 군종교구청 등과 같은 군불교위원회(가칭, 기존의 군종특별교구의 새 명칭)등의 설치가 시급히 요망된다. 군법사의 종법적 지위 향상 및 예비역군법사의 활용, 타종교 군종교구에 필적하는 종단 공식 군포교 기구로서 군 불교의 각종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열악한 군포교의 현실을 잘 아는 불자들은 포교원과 군승단이 추진하고 있는 군승제도 개혁안을 계기로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군포교 현황을 전면적으로 점검, 역량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태고종은 6일 선암사에서 새 스님 199명을 배출했다.

태고종 새스님 199명 탄생

선암사서 23기 수계식

태고종은 6일 순천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23기 합동득도수계식을 봉행, 199경의 새 스님을 배출했다. 인곡 총무원장이 전계아사리, 동호 호계위원장이 교수아사리, 일우 중앙종회의장이 갈마아사리로 주석한 가운데 봉행된 합동수계식에서 사미 156명과 사미니 43명이 계를 받았다. 전계사 인곡스님은 사미 10계를 수계자들에게 전하고 "계를 받고 가사를 수했으니 세속을 향한 애착을 버리고 자기를 계도함은 물론 하화중생에 힘쓸 것이며 청정한 신심을 발해 수행정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합동득도수계산림에 동참한 199명은 3일 출가 의지를 다지고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으로써 단체 헌혈과 사후 장기기증및 화장 서약을 했다. 이경숙 기자

사미니 승가대학장 회의

조계종 사미니 승가대학장회의가 오는 19일 오후2시 교육원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동학사 봉녕사 운문사 청암사 삼선승가대학 학장 등이 참석, 사미니 승가대학 입학 모집 공고 시기 조정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전국 강원교직자 회의

전국강원교직자회의가 17일 오후 2시 해인사에서 열린다. 이날 지방승가대학의 졸업고사 시행 문제와 4급 승가고시제도를 대폭 개선해 기본교육기관 졸업고사와 연계, 강원 교과목 통일등에 대한 논의가 있게된다. 정성운 기자

포교사단 전국조직화

조계종, 83개 포교팀 직능·계층별 1125명 활동

20일 대전서 전국 운영위원회의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정련·포교원장)은 20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11시까지 대전 경원호텔에서 제 1차 전국 운영위원(팀장) 회의를 소집, 전국 단위의 조직을 구성한다.

지역 운영위원(포교팀장) 및 상임위원, 운영위 간사 등 포교사단 간부 1백여명이 참석할 이날 회의에서는 △포교사단 전국 운영위원회 구성 △포교사단 정관 및 규정 심의 및 제정 △임원 선출 △2000년도 사업심의 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포교사단의 전국 조직화는 포교사들이 직능·계층별로 전문포교팀을 자발적으로 구성, 조직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나홀로' 포교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포교로 포교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포교사들이 서울경기지역 운영위원회 등 6개 지역 운영위를 구성하는 등 지역별·포교분야별 운영위를 구성, 자치적인 포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달라진 점이다.

한편 포교사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경기, 부산·경남지역 등 전국 5개 단위 지역 포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군, 경찰, 교도소 △장의봉사, 복지시설, 자원봉사, 상담 △사찰안내, 신행단체, 직장포교등 4개분야로 나누어 제1차 전문화교육을 실시한 결과 총 2127명의 포교사 중 1125명이 참석(52%), 전국적으로 83개의 전문 포교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포교사단의 '99년도 포교사 전문화교육 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역운영위 구성, 포교활동 자료의 축적, 연도별 포교활동 사례집 발간, 전문교육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포교사고시 704명 응시

28일 전국 8곳서 시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실시하는 제5회 포교사고시에 전국 31개 불교교양대학에서 704명(98년 674명)이 응시, 종단 혼란의 와중에서도 높은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부산 불교교육대학이 109명으로 가장 많은 불자들이 응시했다.

28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간 실시되는 시험은 서울 동국대, 부산 금정중, 대구 능인고, 광주 향림사, 전주 화엄불교대학, 대전 보문고에서 각각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22일 경이며 1차 합격자는 내년 1월과 3월 1박2일간의 연수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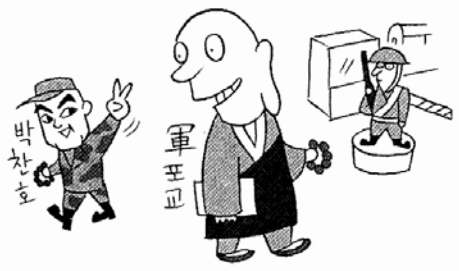
'원불교와 불교' 토론회

19일 원불교사상硏 주최

원광대 부설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송천은 원광대 총장)은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를 주제로 19일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종만 원광대 명예교수, 노권용 원광대 교수등이 발표에 나서고 홍윤식 동국대 교수, 박성기 원광대 주임교무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는 원불교의 종단협 가입 문제와 관련, 원불교 내의 의견조정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사인 많이 받으세요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奉 제5대 총무원장 **지천당 법선종사** 취임대법회 祝

제수 합장 하옵고, 무한광명이 걸림없이 법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불과 빛이 둘이 아니요,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니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였듯이 가고옴도 본래 없지만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려는 이때 본종 제5대 총무원장 지천당 법선종사 취임법회를 교계 원로큰스님을 모신 가운데 사부대중이 뜻을 모아 봉행하고져 하오니
대작불사에 바쁘시더라도 부디 법연의 자리에 동참하시어 혜광이 함께 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일시: 불기 2543년 11월 26일 금요일(음력 10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 문의 (02)733-

■ 증 명 : 일화 대종사 금암 대종사 환묵 대종사

■ 고 문 : 혜정 혜안 혜우 정각 효성 무주 월산 탄공 승덕 법성 호암 혜봉 가행 벽송

■ 자문위원 : 필종 만수 명진 승도 근원 도승 혜도 법천 성학 용락 창교 운산 상묵

■ 봉행위원

송정 지월 원봉 도명 영산 타공 능허 석호 혜청 백운 성초 혜천 성진 만성 일정 해덕 해월 법성
혜명 지오 성오 자오 연오 오현 고산 선종 봉안 혜월 법상 혜수 수덕 명관 무학 혜월 도성 성수
의정 성우 법홍 도신 도인 성신 홍인 해송 도광 삼혜 원정 대연 무애 경업 보명 성각 도행 도안
린각 지현 진허 법전 도선 도봉 도명 고원 혜성 법우 법정 진원 청호 자운 법광 도진 상원 보은
법성 광명 월산 명오 수법 지법 법현 도혜 도담 혜천 보성 명안 보덕 현장 대홍 동훈 월파 향덕
도암 만련 정원 혜일 지담 지윤 혜진 덕명 형관 진오 법륜 성원 수현 법해 법성 정현 정오 보륜
도은 수정 해천 명호 법정 영봉 선견 수월 동간 선광 혜명 혜성 광운 지견 법선 지원 선태 청곡
지엄 심진 혜성 의선 여산 정덕 만종 혜진 지광 법명 법장 지각 도원 도광 진월 우호 보현 혜능
무등 지각 혜명 마성 자명 광운 무공 수령 현설 정일 진오 혜명 일법 법인 지명 법정 지만 자성
혜산 성후 자명 명성 도백 진성 덕운 혜인 자성 자명 대원 무애 성원 보련 성인 도원 원각 각원
혜인 혜송 진홍 도현 혜륜 용각 유각 청혜 청안 지원 지명 근봉 종익 혜정 우산 혜덕 대광 보련
관음행 자비행 선심 광명화 혜련 진여심 보현 진원 계월순 보현행 보화 보광심 세안심 묘화
석암 묘법 원진 문수행 무아심 공덕행 심봉화 무량화 양영옥 대지화 목화 무상주 대덕화 보덕화 대덕화
보현행 보광월 관음행 선수행 영산 월아심 연화 영림 연화심 보광심 미타원 자비심 보광심 (무순)

■ 집행위원장 : 홍구

■ 집 행 위 원 : 현오 법안 도혜 성련

불기 2543년 11월 일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제 5대 지천당 법선종사 총무원장 취임식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회 광 합장